광주은행, 2200만원 공동모금회 기부

광주은행은 최근 사랑의 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사무실에서 지난 2009년 11월부터 2914명이 참여한 카드 포인트 기부캠페인으로 모금된 2170여 만 원을 전달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나주시-가스안전공사 안전설비 지원 협약

임성훈 나주시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권기준 본부장은 최근 나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서민층 가스안전을 위한 타이머 콕 설치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광주시, 야생진드기 무등산 예방 캠페인

광주시와 5개구청 보건소는 지난 8일 무등산국립공원 입구에서 시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야생진드기'로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 예방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광주시 제공〉

장성경찰, 장성실고 학교폭력 예방 논의

장성경찰서(서장 박영덕)는 최근 장성실고에서 학교 학생홍보대사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장성경찰은 지난달 관내 13개 학교에 40명의 학생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우리네 뿌리, 미래 세대에 알려야죠"

섬 유물 354점 목포대 기증…신안 표문철 씨

"예전에 절구는 집안의 가보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죠. 선인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물건이 버려지면서 우리의 전통도 잊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집을 시작했어요."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표문철(67)씨 집에는 특별한 창고가 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는 과거 농사에 사용됐던 호미, 낫, 작두, 쟁기, 써레를 비롯 맷돌, 등불, 항아리 같은 생활용품이 가득하다. 지난 1973년 자은면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99년 퇴직할 때까지 26년간 그가 직접 발품을 마다하지 않고 수집한 물건들이다.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긴하게 사용하던 물건들이 단지 낡았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수집을 시작해 500여 점 가까운 물품을 모았다.

"맷돌처럼 단단한 돌로 된 것도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부식되거나 형태가 변형돼 없어지기 마련이죠."

최근에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에 354점의 유물을 맡기고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그동안 골동품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됐으며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책자를 만들고 추후에는 신안군 자은면에 새로 들어설 생활용품 박물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20년 넘게 모은 물건이지만 개인의 만족을 위해 사유화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보고 전통을 보고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고물건을 수집하는 취미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다. 그의 부인은 쓰지 않는 물건을 자꾸 수집하는 남편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특히 망자를 모셨던 상여를 창고에 들여 놓자 도깨비가 나올 것만 같다며 식겁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인 역시 과거 물건을 보며 애잔한 기억이 떠올라 남편을 더 말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수많은 물건 중 가장 애착이 있는 물건은 원목으로 만든 함지박이다. 지름 40㎝, 높이 15㎝로 원목을 일일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것으로 곡식을 담던 물건이다. 그는 함지박의 질감과 모양이 투박하지만 만든 이가 정성껏 매만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유독 아낀다고 했다.

표문철 씨는 26년간 유물들을 수집하면서 한 번도 감정을 받아보지 않았다. 가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던 소중한 물건들이 편리한 새 도구가 나왔다고 하찮게 취급되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과거 생활용품을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랐다.

"골동품 수집하는 분들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추억이 켜켜이 담긴 물건을 구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요. 조상들이 사용하던 생활용품에는 전통과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소중한 유산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사회가 구성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네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노숙자서 하버드대 장학생이 되다

한국출신 고교생 강찬군, 혈혈단신 3년만에 결실

미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한국출신 고교생이 하버드대학교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해 화제다.

뉴욕 롱아일랜드 월트위트만고등학교 강찬(19) 군은 1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따라 미국 뉴욕으로 갔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한국에 남고 강 군만 미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 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홀로 남겨놓은 채 한국으로 떠났다. 이후 강찬 군은 아버지 친구 집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아버지 친구가 타지로 이사를 떠나면서 집 없이 떠돌며 노숙인 쉼터를 전전하며 지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학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우연히 알게 된 집 없는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빌리지 오브 서포트'에 지원해 공부를 계속해 나갔다.

불우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 군을 본 주민들은 안경을 고쳐주고 등·하교 수단이던 자전거까지 고쳐 주었다. 친구들은 그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함께 살자고 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 했던 강찬 군은 미국에서 혈혈단신으로 학업에 전념해 3년 만에 하버드대학교 전액장학생이라는 꿈같은 결과를 이뤘다. 현재 지인 집에서 머물고 있는 그는 오는 9월 하버드대학에 입학해서 수학과 음악을 전공할 예정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포뮬러 드라이버 문성학씨 F1 홍보대사

올 가을 영암에서 열리는 F1 대회를 국내외에 알릴 홍보대사에 유럽에서 활동 중인 포뮬러 드라이버 문성학(23·성균관대·사진)씨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9일 "문씨를 2013 F1대회 홍보대사로 위촉, 지난 7일 박준영 조직위원장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문성학씨는 "2013 F1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F1 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씨는 자동차경주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활동 중인 해외유학파 1세대다. 2003 코리아 카트 그랑프리 대회를 우승한 후 2004년 영국으로 유학, 그동안 영국 포뮬러 르노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등 F1 드라이버를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국학원 무등산서 '생태힐링 명상교실'

지난 8일 오후 광주국학원이 주최한 '생태힐링 명상교실'이 무등산 탐방로 편백나무 숲에서 열렸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번 힐링명상교실은 무등산 숲과 하나되는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숲의 힐링에너지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처음 열린 힐링 교실은 명상효과를 키우기 위한 기(氣)체조를 시작으로 색깔명상,소리명상,호흡명상, 그림명상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풍영초등학교 조상명(12)군은 "나무가 숨쉬는 듯한 새싹소리를 들어 너무 신기했다" 며 "앞으로 엄마랑 빠지지 않고 힐링 명상교실에 오겠다" 고 말했다.

힐링명상교실은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무등산 편백나무 숲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정서적 안정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할 예정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퇴임 앞둔 김용헌 광주고법원장 성폭력 피해자 후원

오는 10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취임하는 김용헌(58) 광주고법원장이 법관직을 내려놓으며 굿네이버스 광주·전남 본부에 후원금을 내놨다. 나주 성폭력 피해 초등학생을 위해 써달라는 부탁도 곁들였다. 사실 김 법원장은 사건 발생 때부터 피해 어린이를 돕고 싶었지만, 고법원장이라는 지위와 관할 구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 때문에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김 법원장은 광주고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무기징역)이 선고되고 법관이라는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돼 홀가분한 심정으로 후원에 나섰다.

김 법원장은 지난 7일 퇴임식에서 "겸손과 성실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행동의 준칙을 중용에서 찾아 사건 당사자들이 최소한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으로 법관생활을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그렇더라도 상처를 입은 관계자들이 있다면 용서를 바란다"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직이 낯설지만 새출발하는 청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떠나겠다"고 밝혔다.

사시 20회에 합격한 김 법원장은 1981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 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법정에서 구술 공방이 활성화되도록 따뜻하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했고, 대법원 판결문에 주심 대법관을 표기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비서진만 데리고 채식뷔페를 즐기는 소탈함도 지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가수 홍진영 모교 조선대 홍보대사

조선대학교 출신 트로트 가수 홍진영씨가 모교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지난 7일 오후 조선대 총장실에서 홍보대사 임명장을 받은 홍진영(무역학과 졸업)씨는 방송인 이한위씨에 이은 두 번째 연예인 홍보대사로 대학을 알리는 데 앞장선다.

홍진영은 "방송 출연해서는 물론이고 메신저, 트위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대학교를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사

◆광주 동구

◇ 5급 승진 ▲충장동장 김두조 ▲지산1동장 임채문 ▲지원1동장 최주동 ▲산수2동장 이종현

◆광주 북구

◇ 5급 승진 ▲문화동장 김성학

◆광주 광산구

◇ 5급 승진 ▲지방공기업설립준비단장 이성수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박승주(순천경찰서장)·조영란씨 장남 형종군 윤진상(전남대의대 교수)·조 숙(광주이빈후과원장)씨 장녀 수린양=16일(일) 오후 1시 광주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이근수·김인숙씨 차남 승휴군 최한용(광주지검)·배금희씨 막내 선민양=16일(일) 낮 12시 라붐웨딩홀 2층 The 모던홀.

종친회

▲진주 강씨 청·장년회 월례회 모임=10일(월) 오후 7시 20분 동구 금남로 5가 '동해바다' 011-625-0900.

▲범최씨 대종연합회(회장 최남용) 2013정기총회=11일(화) 오전 10시 30분 동구 지산동 명선헌 한정식 010-7312-1292.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이화회 월례회의=11일(화) 오후 6시 30분 도지원 회의실 017-601-2266.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학부모교육=인성 창의교육으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1일(화) 오후 2시~3시 40분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대상은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회원 및 시민(학부모) 200여명(참가비 무료) 062-227-0402, 062-512-3341, 010-2627-4702.

▲유학허브 광주지사 조기유학설명회=개별 상담 및 무료(SLEP)유학 시험응시가능 NC(구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선착순 접수) 062-263-3434.

▲시민 학생의 '인성함양'과 '성찰과 미래'를 위한 철학박사의 인문학 강좌 "우리 꿈 우리가 키우자"='논어'(매주 토요일 오후 4시)·'대학'(매주 월요일 오후 7시)(5월~12월) 광주YMCA 2층(수준무관·누구나 수강가능 무료) 010-3625-5433.

▲책임음주를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한솔(부부를 일컫는 순 우리말) 절주학당'=6월 13일~7월 25일(총 7회·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구)요한알코올상담센터 062-526-3370, 510-337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조애옥)=북구 무등로 180번길 5호(신안동 133-1 번지 행남자기 2층) 062-523-6028.

▲한국 애질런트 테크놀로지 CAG (화학분석그룹)=애질런트 광주 교육장 개소, 상무지구 우정청 맞은편 창호빌딩 4층 062-376-1981.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 초·중·고등학생의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우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모집

▲무등예술종합평생교육원=유아교사를 위한 반주법, 정서를 위한 악기 사용법·뮤지컬 텝댄스·바른몸 운동지도사 양성과정. 노동부 지원·국비지원(직장인·일반인·창업예정인, 자격증반 수시접수) 062-269-6669, 010-3606-0230.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지원 사업=6일~7일 입양가족 캠프(공개입양 가정 역량강화) 대상은 5세이상 입양가녀를 둔 입양가족.

▲대한상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비 지원.

▲'청소년 생명존중 프로그램'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전문강사 양성 워크샵=24일(월)~25일(화) 오전 9시~오후 6시 생명의 전화(동구 지산동 716-30 지산교육문화관) 광주생명의전화 062-232-9192.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S-MI)의과대학 편입생=SSMI 졸업시 국내 의사면허시험 및 미국 의사면허시험 응시가능(학사학위자에 한함·예체능 계열 제외) 062-263-3434.

▲다음카페-참된 나(?)찾기 학교 무료 교육=우울증, 불면증, 두통, 불안심리, 이명, 환청, 환상, 강박관념, 대인공포증, 가위눌림, 악몽, 자살충동, 신내림, 귀신들림, 정신질환, 신경성질환, 만성난치·금연금주, 악습·가족갈등, 비만·체질교정, 불생불사, 8고해탈, 진리체득, 학습력강화, 최면, 원인을 알 수없는 병등 010-6609-9068.

▲영자신문 TIMES 회원=영자신문으로 보고 원어민이 들려주는 생생한 영어뉴스(틴타임즈, 킨더타임즈, 키즈타임즈) TIMES CORE 광주전남교육센터 010-7777-3235.

부음

▲이기철씨 별세 이대용·경희·경숙·복진·복경 씨 부친상=발인 10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나순규씨 별세 나승근·영국·승찬·금화·금숙 씨 부친상=발인 10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박병희씨 별세 우상욱·애경·상호(민주당 국회의원) 씨 모친상=발인 12일(수)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02-2227-7580.

▲ 김대종(광주매일신문 전무) 씨 별세 태종(구구기업 대표)·대성(기아자동차)·대옥·장심·장숙 씨 형제상=발인 12일(수) 광주 천지장례식장 202호 062-526-1000.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전정식 님(여/83세)
子/子婦 : 노성수/박복현, 승옥/박하숙
女/壻 : 노성순/황준수, 선희/임명운
• 호실 : 201호 • 발인 : 6월 11일
• 장지 : 담양천주교묘지 • 연락처:227-4381

故문말님 님(여/89세)
子/子婦 : 전영숙, 이진원/조규연
孫:이지행, 관행, 정실
• 호실 : 401호 • 발인 : 6월 11일
• 장지 : 영락공원 • 연락처:227-4383

故문영주(남/56세)
女/壻 : 문새미나/김진만, 희연
未亡人 : 서은숙
• 호실 : 402호 • 발인 : 6월 10일
• 장지 : 영락공원 • 연락처:227-4314

故임오영(여/56세)
夫 : 최금수
子 : 최익현 女 : 최수형
• 호실 : 102호 • 발인 : 6월 10일
• 장지 : 영락공원 • 연락처:227-4386

마음까지 편안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